일　　어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1) 子供が大きくなるにつれ、普通なら父親として男として出来あがっていくのだろうが、男として成長しなければならない分を子供の成長に奪いとられているように、花子のなかで太郎という男は変に幼くなっていく。最近は鍵っ子暮らしで妙にしっかりしてしまった子供が「お父さんは字が下手だね。それで本当に学校の先生やっているの」と、生意気な口を叩くのを太郎が何の言葉を返さずしゅんとなって聞いていたりする、父と子の逆転している光景に、花子のほうが慌てて、「お父さんは絵を教えているからいいの。お父さんの字は絵のようなもんよ。芸術的なのよ」父親の威厳を自分の口で代わりに説かねばならなかった。(10점)

2) われわれはしばしば「嘘のこと」といわれる分野で感情をかしていたり、行動していたりすることさえあります。嘘とは、つまり、非合理とか非論理ということです。換言すれば、半ば情念や情緒に属するものをすっかり捨てて生活できるかというと、それはとんでもないことです。たとえば、愛とか憎しみとかいうものを捨てて生活できるかというと、まったくできません。愛とは、理屈では割り切れない、言い表しようのないものだと思います。理屈で押していって、それがすべての価値だと考えたときには、愛などというものはすっかり分からなくなり、お手上げになってしまう。憎しみもそうだと思います。(10점)

3) 現代社会はストレス社会だとも言われている。職場での人間関係、仕事のミス、満員電車、狭い住宅……。ストレスの要因は挙げたらきりがないほど多い。

精神的ストレスが多いと、心だけではなく体まで病気になるという研究結果も発表されている。まさに「病は気から」である。離婚、肉親の死亡、家族の病気などの不幸がストレスの原因になることはもちろんだ。配偶者に死なれた人の死亡率は、夫婦がそろっている場合の二倍に上るというデータもある。相手を失って一人寂しく生きることのストレスが体力を衰えさせるということだろうか。(5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1) 외국인이 일본인과 사귈 때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인의 애매한 태도이다. 즉 일본 사람들은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든가, 좋고 싫음을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초대를 하여도 가는지 가지 않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거나, 남이 잘못된 일을 하여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다.

어느 파키스탄 남성은 "일본 여성에게 '멋지다', '예쁘다'라고 하여도 애매한 미소를 띄울 뿐 반응이 없다. 가벼운 기분으로 차 한잔하자고 권했을 때에도 경계할 뿐 역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싫다면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일본 여성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다.

일본인끼리라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도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점)

2) 연애에 있어 만남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네’라고 호감을 가져도, 타이밍에 따라서는 그냥 그뿐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쪽이 연애중이라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의 만남이라도 결실을 맺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반대로 한쪽이 실연 직후라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 연애의 시작은 물론 서로 끌리는 것부터이겠지만, 실은 그것조차도 타이밍에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생각된다. 좋은 느낌만으로 끝나 버린 연애. 조금 빨랐더라면 하는 만남. 서로의 기분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물리적으로 찾아와 버린 이별. 누구나 마음속에 한번쯤은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겠는가. (10점)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장